

부정문의 중의성과 동의성 양상에 대한 연구*

박형우(한국교원대).

< 차 례 >

- I. 서 론
- II. 국어 부정문의 중의성과 동의성
 - 1. 조사 방법
 - 2. 일반적인 부정문의 중의성과 동의성
 - 3. 부사가 포함된 부정문의 중의성과 동의성
 - 4. 수량사가 포함된 부정문의 중의성과 동의성
 - 5. 종속절이 포함된 부정문의 중의성과 동의성
- III. 결 론

I. 서 론

우리말을 부정하는 방식에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유형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말의 주요 특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정문에 대한 논의가 학계의 관심사가 된 데에는 6·70년대 변형-생성문법이라는 새로운 연구 경향의 유입이 계기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장형 부정문과 단형 부정문이라는 두 가지 방식의 부정문은 동의성¹⁾을 갖는가, 서로 의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장형과 단형 부정문의 의미는 어떻게 다른가, 같은 의

* 이 논문은 한국교원대학교 2007학년도 기성회계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음.

1) 부정문 관련 논의에서 대부분 ‘동의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는 있으나 언어의 경제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동의성’이라는 말은 두 문장이 전혀 의미 차이가 없는 완전한 동의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다만 두 가지 유형의 부정문이 갖는 문법적 해석에 큰 차이가 없다는 의미로 ‘동의성’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미라면 과연 어떤 유형을 심층 구조로 보아야 하는가 등등의 내용이 선행 연구에서 부정문과 관련하여 다루어졌던 주요한 논쟁거리였다. 대부분 심층 구조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두 가지 부정문의 동의성 여부가 결정되었다.²⁾

이러한 부정문 관련 논쟁은 일정한 결론을 이끌어 냈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으나 한국어 부정문의 구조와 의미의 문제를 매우 심도 있게 다루어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국어학 연구의 측면에서도 공헌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연구와 관련하여 부정문의 의미에 관한 측면을 다루고자 한다. 지금까지 부정문의 의미와 관련한 선행 연구들에서 쓰인 많은 예문들은 그 출처가 불분명하고 그 의미 파악에 대해서도 연구자의 직관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연구자에 따라 각각의 예문에 대해 다른 해석을 내리기도 하고, 그 해석의 문제 자체가 논쟁의 핵심이 되기도 했다. 이렇게 하나의 예문에 대해 다른 해석을 하게 되는 상황으로 인해 각각의 예문은 한 연구자가 주장하는 논제의 근거가 되는 동시에, 그 연구자의 논의를 논박하는 상대방 연구자의 근거가 되기도 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한 것도 사실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부정문의 중의성과 그에 따른 동의성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한 본고는 설문지를 통해 실제 언중의 언어 직관에 따라 부정문의 동의성과 중의성 문제를 살펴보았다. 소위 단형 부정문과 장형 부정문의 동의성 문제와 중의성 문제는 사실상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본고에서는 실제 선행 연구에서 두 부정문의 동의성과 중의성에 관련하여 문제가 된 특정 구문에 따라 언중의 언어 의식을 살펴본다. 예를 들어 부사, 수량사, 종속절 등이 사용된 부정문 사이의 관계가 그것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부정문의 의미 문제에 대한 보다 정밀하고 구체적인 국어학적 해석의 기초가 마련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다만 본고에서는 언중의 언어 의식에서 이러한 측면을 고찰하는 것으로

2) 최근에는 부정문의 심층 구조와 의미의 연관에 대해서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설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갑용(2005: 126)에서는 두 부정문의 유형 문제에 대해 “통사적 규칙이나 성격이나 능력이 제한되기 시작한 이후의 모델이나, 연산의 나중 단계에서의 삽입(late insertion)이 허용되지 않는 최근의 최소주의(Minimalist Program)의 가설 하에서는 배번집합(numeration)이 다른 두 문장의 관계는 동일 기저구조에서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 구조에 관한 설명은 논외로 한다. 또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문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므로 구어의 상황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화맥이나 억양, 휴지, 강조에 의한 부정문의 중의성이나 동의성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II. 국어 부정문의 중의성과 동의성

선행 연구자들은 중의성으로 인해 두 부정문이 동의성을 갖게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주로 장형 부정문의 경우에 중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그 중의적인 내용 중 일부가 단형 부정문의 의미와 동의를 이룬다는 식의 설명이다.³⁾ 그러나 이러한 설명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나 검증은 없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각 부정문의 중의성을 통한 동의성 여부에 대해 검증한 바도 없었다. 본고에서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제 언중의 부정문에 대한 인식 상태를 확인하였다.

1. 조사 방법

본고의 조사 기간은 2005년과 2006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조사 대상은 충북 소재의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생이다. 조사 대상인 학생들은 대부분 20세 이상 남녀 학생으로, 한 지역에 위치한 대학의 학생이라는 점에는 한계가 있으나 조사 대상들이 학교의 특성상 특정 지역의 편중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역차로 인한 특성이 반영될 여지는 적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전공 학과에 대한 구분 없이 남성 96명과 여성 163명으로 총 259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⁴⁾ 그리고 조사 방식은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조사자

3) 이러한 논의에 대해서는 양동휘(1976), 李基用(1979), 임흥빈(1978), 구종남(1992), 송석중(1993) 등을 참고할 수 있다.

4) 모든 지역의 응답자가 동일한 수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특정 몇몇 지역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응답자만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연구 목적이 지역에 따른 차이점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남녀 인원도 그 비율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일정한 숫자 이상의 응답자를 구성하였으므로 이 경우에는 남녀 간의 차이점을 논의하는 데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한다.

의 개인 정보에 대한 내용에는 성별, 연령 그리고 자신의 출신 지역을 행정구역 별로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에 대한 내용을 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⁵⁾

〈표 1〉 조사 대상 현황

지역 성별	수도권	강원	충청	경상	전라	제주	기타	합계
남성	23 (23.96%)	3 (3.13%)	31 (32.29%)	27 (21.16%)	9 (9.38%)	3 (3.13%)	· (0.00%)	96
여성	44 (26.99%)	5 (3.07%)	34 (20.86%)	46 (28.22%)	28 (17.18%)	5 (3.06%)	1 (0.61%)	163
합계	67 (25.87%)	8 (3.09%)	65 (25.10%)	73 (28.19%)	37 (14.29%)	8 (3.09%)	1 (0.39%)	259

설문지는 응답자들에게 부정문을 제시하고 그 부정문의 의미로 판단이 가능한 답지를 아래 제시하여, 응답자가 그 부정문의 의미로 판단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답지에 제한 없이 표시하도록 구성하였다. 이 때 제시된 답지는 그 부정문의 각 성분이 부정될 수 있는가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대개 다섯 가지에서 여섯 가지의 답지로 이루어졌다. 다만 이 답지는 부정문의 모든 성분에 대한 각각의 답지와 그 성분의 조합으로 가능한 모든 부정 대상의 수만큼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⁶⁾

또한 이러한 답지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있다. 응답자가 실제로 존재하는 부정문의 중의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

5) 실제 각 설문에 대한 응답자의 수에는 차이가 있다. 각 질문에 답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일부 설문에만 응답을 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전반적으로 설문에 응답하지 않은 응답지는 통계에서 제외했고 질문지에 대한 일부 답변만 누락된 경우에는 통계에 그 부분만을 제외하고 포함시켰다. 그래서 통계를 제시할 때마다 응답자의 수를 따로 밝혔다.

6) 부정문에서 정확한 부정의 대상이나 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성분을 부정하는 답지뿐만 아니라 각 성분이 조합을 이룬 답지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답지를 구성할 경우 답지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응답자가 혼돈을 일으키거나 답지 간의 의미 차이를 인식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설문지에 넣은 답지는 각각의 성분과 몇몇 대표적인 조합의 경우만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답지를 통해서도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각 부정문의 중의성과 동의성 문제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여 잘못된 응답을 할 가능성이 있다. 즉 실제로 부정문의 중의성이 존재함에도 응답자의 언어적 직관력이 부족하거나 편중되어 잘못된 반응을 보일 우려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본고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것도 부정문의 의미 차이에 대한 언중의 인식 정도를 나타내는 측정의 결과라고 생각한다.⁷⁾

2. 일반적인 부정문의 중의성과 동의성

일반적으로 가장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긍정문의 부정문을 대상으로 단형 부정문과 장형 부정문의 의미 차이를 확인해 보았다. 일반적인 단형 부정문과 장형 부정문의 경우 그 동의성은 인정하면서도 단형 부정문의 중의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대상이 된 문장은 주술 구조를 가진 문장에 대한 단형 부정문 ‘철수가 영희를 안 잡았다.’와 장형 부정문 ‘철수가 영희를 잡지 않았다.’이었고, 각 성분에 대해 부정의 의미를 갖는 답지를 5가지로 제시하였다.⁸⁾

〈표 2〉 술목 구조 부정문의 중의성

부정의 대상 응답자		1개	2개	3개	4개	5개	합계	비고
단형	응답수	55	107	74	6	9	251	
	비율(%)	21.91	42.63	29.48	2.39	3.59	100	무응답자 8명
장형	응답수	76	89	70	7	5	247	무응답자 12명
	비율(%)	30.77	36.03	28.34	2.83	2.02	99.99	

우선 단형 부정문의 경우에는 무응답자 8명을 제외한 전체 251명의 대상자 중에서 평균 2.23개의 답지에 대해 응답하였다. 그 의미가 중의적이라

7) 사실은 선행 연구에서 단형 부정문과 장형 부정문의 차이에 대한 언급은 부정문 자체의 의미 차이라기보다는 이러한 중의적 해석의 경향이나 판단의 오류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본고에서 밝히고자 하는 것이 이와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8) 각 답지로 제시된 예문은 다음과 같다. ① 철수는 영희가 아니라 수희(제3의 인물)를 잡았다, ② 철수가 아니라 민수(제3의 인물)가 영희를 잡았다, ③ 철수는 영희를 잡은 것이 아니라 놓쳤다, ④ 철수가 아니라 민수가, 영희가 아니라 수희를 잡았다, ⑤ 철수가 아니라 민수가, 영희가 아니라 수희를 잡지 않고 놓쳤다.

고 판단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의 의미로만 해석된다고 본 인원이 55명(21.91%)이지만 2개 이상의 의미로 해석되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가 196명(78.09%)으로 압도적이다. 단형 부정문은 중의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단형 부정문도 역시 중의적인 것으로 언중은 인식하고 있다.

장형 부정문에서는 중의적이라고 의미를 판정한 경우가 무응답자 12명을 제외하면 66.03%로 오히려 단형 부정문의 경우보다 약간 줄어 든 수치를 보이고 있다. 평균적으로는 2.09의 답지에 답하여 단형 부정문과 유사하게 2개 정도의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으로 중의성의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각 성분에 대해서 부정의 대상이 된다고 응답한 수를 전체 응답자의 수로 나눈 것이 그 비율이다.

〈표 3〉 술목 구조의 부정문에서 파악한 부정의 대상

부정의대상 응답자		① 주어 (철수가)	② 목적어 (영희를)	③ 서술어 (잡았다)	④ 주어, 목적어	⑤ 주어, 목적어, 서술어	합계
단형	응답수	221	186	72	64	17	560
	비율(%)	88.05	74.10	28.69	25.50	6.77	223.11
장형	응답수	199	164	87	57	10	507
	비율(%)	80.57	66.40	35.22	23.08	4.05	205.27

술목 구조를 가진 단형 부정문의 경우 가장 높은 빈도로 부정의 대상이 된다고 지목된 것은 88.05%의 주어이다. 그 다음으로 목적어(74.10%)가 부정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한 경우가 많았고, 서술어를 부정의 대상으로 보는 경우는 27.80%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부정의 대상이 2개 성분 이상이라고 답한 경우는 그 빈도가 낮기는 하지만 주어와 목적어가 한꺼번에 부정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 경우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장형 부정문에서도 부정의 대상이 되는 성분으로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은 단형 부정문과 같이 80.57%의 주어이다. 단형 부정문과 수치상 차이가 있으나 그 우선 순위는 단형 부정문과 같아서 목적어, 서술어, 주어·목적어, 주어·목적어·서술어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장형 부정문의 경우에는 단형 부정문에 비하여 목적어를 부정의 대상으로 지적한 비율은 66.40%로 조금 낮고, 서술어를 부정의 대상으로 지적한 경우는 35.22%로 조금 높았다.

술목 구조의 부정문에서는 단형과 장형에 구분 없이 주어와 목적어가 모두가 부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것 또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⁹⁾ 단형 부정문에서 25.5%, 장형 부정문에서 23.08%로 단형 부정문에서 그 응답 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큰 차이는 아니다. 이는 술목 구조의 문장에서 부정의 대상으로 주어와 목적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술목 구조의 부정문에 나타나는 중의성과 그 중의성 양상에서는 남녀간의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¹⁰⁾

〈표 4〉 술목 구조 부정문에서 부정의 대상에 대한 남녀차

부정의 대상 응답자		① 주어 (철수가)		② 목적어 (영희를)		③ 서술어 (잡았다)		④ 주어, 목적어		⑤ 주어, 목적어, 서술어		합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단형	응답수	80	141	69	117	23	49	24	40	7	10	203	357
	비율(%)	86.02	89.24	74.19	74.04	24.73	31.01	25.81	25.32	7.53	6.33	218.28	225.95
장형	응답수	74	125	58	106	28	59	19	38	4	6	183	334
	비율(%)	85.06	78.13	66.67	66.25	32.18	36.88	21.84	23.75	4.60	3.75	210.34	208.75

일부 항목에서 남녀 사이 비율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커다란 차이로 보기 어려우며 중의성을 느끼는 정도의 차이나 전체적인 부정 대상에 대한 인식의 순위에는 차이가 없었다. 다만 전반적인 면에서 단형 부정문의 경우에는 남성에 비하여 여성이 부정문의 중의성에 대해 더 많은 응답을 했고, 장형 부정문의 경우에는 그 반대인데 두 경우 모두 큰 수치의 차이는 없기 때문에 중요한 차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일반적인 단형 부정문과 장형 부정문에 대해서

9) 설문의 내용에는 주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가 부정되는 예문은 넣지 않았다. 설문이 너무 복잡해져서 응답자들이 오히려 혼란을 겪을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배제한 것이다. 다만 이렇게 부정의 대상이 복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위의 설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10) 단형 부정문에 대한 응답자 중 남성이 93명, 여성은 158명으로 총 251명이 답하였고, 장형 부정문의 경우에는 남성이 87명, 여성은 160명이 답하여 총 247명이 응답하였다.

언중은 동의성을 느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동의성은 어느 한쪽은 중의적이고 나머지 한쪽은 안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두 유형의 부정문 모두 중의적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 중의성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각각의 부정문의 의미 측면을 살펴보아도 그 부정의 대상이 되는 성분과 그 우선 순위에도 두 부정문의 유형에 따라 별다른 차이가 없다. 또한 응답을 한 남녀 응답자에게서도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3. 부사가 포함된 부정문의 중의성과 동의성

부사가 문장에 포함되어 부사어로 쓰인 부정문인 경우 ‘부사’가 부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부사가 부정이 되는 경우가 장형이나 단형 부정문에 국한되는지가 과거 논의에서 문제가 되어 왔다.¹¹⁾ 이번 설문지에서는 ‘연사가 갑자기 안 외쳤다.’와 ‘연사가 갑자기 외치지 않았다.’라는 부정문을 제시하고 부정의 대상이 서로 다른 6가지의 답지를 제시했다.¹²⁾

〈표 5〉 부사가 포함된 부정문의 중의성

부정의대상 응답자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합계	비고
단형	응답수	137	91	21	6	0	2	257	무응답자 2명
	비율(%)	53.31	35.41	8.17	2.33	0.00	0.78	100.00	
장형	응답수	136	83	25	11	1	3	259	무응답자 없음
	비율(%)	52.51	32.05	9.65	4.25	0.39	1.16	100.01	

11) 부사에 대한 부정에서 단형 부정문과 장형 부정문이 차이가 있다고 보는 대표적인 입장이 송석중(1993: 171)에 나타나고 있다. “영수는 몰래 아니 갔다”와 “영수는 몰래 가지 아니 했다”라는 문장을 대상으로 하여 단형 부정문은 영수가 안 갔으며 그 일을 은밀히 했다는 의미로, 장형 부정문에 대해서는 영수가 가기는 했는데 간 일을 은밀히 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보고 있다. 즉 장형 부정문의 경우에만 ‘몰래’라는 부사를 부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특징에 대해 부사 삽입이 문제가 아니라 두 문장의 부정 범위에 차이가 있던 것이 “부사가 삽입되므로 잠재되었던 효용이 드러난 것”이라고 보고 있다.

12) 제시된 답지는 다음과 같다. ① 연사가 아니라 조명 기사(제3의 인물)가 갑자기 외쳤다, ② 연사는 갑자기가 아니라 외칠 것 같은 조짐을 보이고 외쳤다, ③ 연사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계속 외치더니 지금은 외치지 않았다, ④ 연사는 갑자기 외친 것이 아니라 갑자기 노래를 불렀다, ⑤ 연사가 아니라 조명 기사(제3의 인물)가, 예고하고 외쳤다, ⑥ 연사가 아니라 조명 기사(제3의 인물)가, 예고하고 노래를 불렀다.

우선 단형 부정문의 경우에는 무응답자 2명을 제외한 전체 257명의 응답자 중에서 평균 1.63개의 답지에 대해 응답을 하였다. 술목구조를 가진 일반적인 부정문에 비해서는 중의적이라는 판단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의 의미로만 해석된다고 본 인원이 137명, 53.31%를 차지하고 있다. 절반 이상이 중의적이라는 생각을 못한 것이다. 그리고 중의적이라는 생각을 한 응답자들 중에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본 경우가 91명, 35.41%로 가장 많았다.

같은 긍정문에 대한 장형 부정문의 경우 단형 부정문과 마찬가지로 중의성 인식의 정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259명의 응답자 중에서 평균 1.71개의 답지에 대해 응답을 해서 단형 부정문보다는 약간 높게 나타났다지만 술목 구조의 문장에 비해서는 중의성 인식의 정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 단형 부정문과 마찬가지로 중의적이라고 판단하지 않은 경우가 136명으로 52.51%에 해당한다. 그리고 중의적이라고 판단한 경우에도 두 가지의 의미로 응답한 사람이 83명 32.05%로 가장 높다.

이러한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부사가 포함된 부정문의 경우에는 단형 부정문이든 장형 부정문이든 오히려 부정을 대상이 될 수 있는 성분의 수는 일반 부정문에 비하여 늘어났지만 중의성에 대한 인식은 오히려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³⁾ 그렇지만 이러한 결과로 인해 부사가 포함된 문장은 중의적이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을 것이다. 전체 응답자 중에서 절반 정도는 그 의미를 중의적인 것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로 답한 응답자의 응답도 여러 답지로 그 응답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오히려 언중이 부사가 포함된 부정문에 대한 중의성 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문장에서 중의성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13) 성분의 수가 늘어서 부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늘어난 것은 수학적으로는 중의성의 발생이 증가할 경우의 수가 증가함을 의미하지만 화자와 청자에게는 문장이 전체적으로 보다 더 복잡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성분이 여러 개인 상태에서 부정의 중의성 문제가 개입되면 문장의 복잡성이 오히려 증가하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의성에 대한 인식이 떨어진다는 것은 의사소통의 효율성 문제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6> 부사가 포함된 부정문에서 파악한 부정의 대상

부정의 대상 응답자		① 주어 (연사가)	② 부사어 (갑자기)	③ 서술어1 (외치다)	④ 서술어2 (다른 행위)	⑤ 주어, 부사어	⑥ 주어, 부사어, 서술어	합 계
단형	응답수	39	102	239	18	17	3	415
	비율(%)	15.18	39.69	93.00	7.00	6.61	1.17	161.48
장형	응답수	46	110	237	28	20	3	444
	비율(%)	17.76	42.47	91.51	10.81	7.72	1.16	171.43

부사가 포함된 단형 부정문에서 특징적으로 보이는 것은 서술어를 부정의 대상으로 본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이다. 모든 응답자들이 ‘외치다’라는 서술어 자체를 부정하여 외치지 않았다거나 다른 행위를 했을 것으로 예문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부사어를 부정의 대상으로 보는 응답자가 39.69%이다. 앞에서 술목 구조의 문장에서 주어와 목적어를 부정의 주요 대상으로 보는 입장과는 큰 차이가 있다.

장형 부정문의 경우도 단형 부정문의 경우와 커다란 차이가 없다. 서술어를 부정의 대상이라고 생각한 응답자가 단형 부정문에서보다 증가하였으며, 각각 주어, 부사어가 부정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한 응답자도 소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부사를 가진 장형 부정문과 단형 부정문에서 그 문장의 중의성과 관련하여 분명한 인식적 차이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전반적으로는 두 부정문의 양상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부사가 포함된 부정문의 경우 부정의 대상이 ‘주어와 부사어’, ‘주어와 부사어와 서술어’로 복수일 수 있다는 응답은 단형 부정문의 경우 7.78%, 장형 부정문의 경우 8.88%로 매우 낮은데 술목 구조의 문장에서 주어와 목적어 모두가 부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응답자가 20% 이상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부사가 포함된 부정문의 경우 단형 부정문과 장형 부정문에 관계없이 그 부정 대상의 파악에 대한 남녀 간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¹⁴⁾

14) 부사가 포함된 단형 부정문의 남녀 응답자 수는 94 : 163이고, 장형 부정문의 경우에는 96 : 163이었다.

〈표 7〉 부사가 포함된 부정문에서 부정의 대상에 대한 남녀차

부정의 대상 응답자		① 주어 (연사가)		② 부사어 (갑자기)		③ 서술어1 (외치다)		④ 서술어2 (다른 행위)		⑤ 주어, 부사어		⑥ 주어, 부사어, 서술어		합 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단형	응답수	16	23	36	66	86	153	4	14	4	13	1	2	147	271
	비율 (%)	17.02	14.11	38.30	40.49	91.49	93.87	4.26	8.59	4.26	7.98	1.06	1.23	156.38	166.26
장형	응답수	14	32	42	68	89	148	11	17	6	14	1	3	162	282
	비율 (%)	14.58	19.63	43.75	41.72	92.71	90.80	11.46	10.43	6.25	8.59	1.06	1.84	168.75	173.01

남녀 응답자의 반응을 살펴보면 우선 부정의 대상에 대한 우선 순위나 각 부정의 대상에 대한 인식에는 커다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체적인 응답수를 보면 단형 부정문과 장형 부정문에 관계없이 선택한 응답의 수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좀더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부사가 쓰인 부정문의 중의성을 인식하는 정도에서 단형이나 장형에 관계없이 여성이 더 민감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 부사가 포함된 부정문의 중의성과 동의성에 관련된 논의의 핵심은 두 부정문의 의미 차이가 이러한 경우에는 분명히 존재하며 그것은 부사의 부정 여부와 관련된 것이라는 식의 논의였다. 그러나 실제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부사가 포함되었다고 하여도 단형 부정문과 장형 부정문에 대한 언중의 의식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형 부정문과 장형 부정문에 관계없이 부정의 대상은 서술어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부사어로 나타났다. 특히 이렇게 부사가 포함된 문장의 경우에는 부정문의 중의성 인식이 일반적인 부정문의 경우보다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중요한 특징이며, 부정의 대상이 복수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부정문보다 낮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부사가 포함된 부정문에서도 단형 부정문과 장형 부정문의 의미 차이는 발견하기 어렵다. 두 유형의 문장이 동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부정의 대상에 대한 인식의 정도와 그 대상에 대한 인식의 우선 순위에도 별다른 차이가 역시 없다. 다만 남성과 여성을 비교한다면 여성의 경우가 부정의 대상 인식에서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4. 수량사가 포함된 부정문의 중의성과 동의성

일반적으로 장형 부정문과 단형 부정문의 차이점을 논의하는 데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이 수량사와 관련한 부정문의 의미가 장형과 단형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손님이 모두 안 왔다.’와 ‘손님이 모두 오지 않았다.’라는 부정문을 대상으로 부정의 대상이 다른 6가지 답지를 제시하고 응답자들의 인식을 확인해 보았다.¹⁵⁾

〈표 8〉 수량사가 포함된 단형 부정문의 중의성

부정의대상 응답자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합계	비고
단형	응답수	79	155	20	3	1	1	259	무응답자 없음
	비율(%)	30.50	59.85	7.72	1.16	0.39	0.39	100.01	
장형	응답수	94	143	18	1	1	2	259	무응답자 없음
	비율(%)	36.29	55.21	6.95	0.39	0.39	0.77	100.00	

우선 ‘손님이 모두 안 왔다.’라는 단형 부정문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단 두 가지 이상의 의미에 응답을 한 사람은 180명(69.50%)이다. 중의성의 인식 면에서 보면 일반적인 단형 부정문의 경우보다는 낮고 부사가 쓰인 부정문의 경우보다는 좀더 높게 나타났다. 중의적이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79명으로 30.50%에 달하지만 평균적으로는 1.82개의 의미가 있다고 답하여 언중들은 그 의미가 중의적이라고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의적이라는 판단을 한 응답자 중에서는 두 가지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155명, 59.85%에 해당하며 세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9.66% 밖에 되지 않는다.

수량사가 포함된 장형 부정문 ‘손님이 모두 오지 않았다’의 경우에도 이 문장이 두 가지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답한 사람은 165명으로 63.71%이다. 이

15) 제시된 답지는 다음과 같다. ① 손님이 아니라 주인들이 모두 왔다, ② 손님들 중 일부는 왔지만 일부는 도착하지 않았다, ③ 손님들이 한 명도 오지 않았다, ④ 손님들이 모두 온 것이 아니라 모두 가 버렸다, ⑤ 손님들이 아니라 주인들이, 모두가 아니라 일부가 왔다, ⑥ 손님들이 아니라 주인들이, 모두가 아니라 일부가 갔다.

러한 비율은 앞에서 살펴본 단형 부정문의 경우보다는 약간 그 비율이 낮은데 상대적으로 중의적이지 않다고 인식한 응답은 36.29%로 단형 부정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일반적인 장형 부정문과 부사가 쓰인 장형 부정문에서의 중의성 인식과 비교하면 단형 부정문에서와 같이 그 중간에 위치하는 값이다. 중의적이라고 인식한 경우에는 단형부정문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의미로 파악한 경우가 143명, 55.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3개 이상의 의미로 파악이 가능하다는 응답자는 22명에 8.50%로 매우 적었다.

다음으로 수량사가 포함된 단형과 장형 부정문에서 부정의 대상 문제를 살펴보겠다.

〈표 9〉 수량사가 포함된 부정문에서 파악한 부정의 대상

부정의 대상 응답자		① 주어, 수량사 전체	② 수량사 부분 (일부 왔다)	③ 수량사 전체 (한 명도 안 왔다)	④ 서술어 (오지 않고 갔다)	⑤ 주어, 수량사 부분	⑥ 주어, 수량사 부분, 서술어	합 계
단형	응답수	19	202	226	13	9	3	472
	비율(%)	7.34	77.99	87.26	5.02	3.47	1.16	182.24
장형	응답수	12	188	224	21	6	4	451
	비율(%)	4.63	72.59	86.49	8.11	2.32	1.54	174.14

수량사가 포함된 단형 부정문에서 부정의 대상으로 파악한 성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수량사를 부정의 대상으로 파악한 응답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수량사를 부분 부정하는 것으로 보아 ‘일부가 오고 일부는 안 왔다’라는 의미로 파악한 경우가 77.99%, ‘한 명도 안 왔다’라는 전체 부정의 의미로 파악한 경우가 87.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서술어만 부정한다고 보는 응답이 많았고, 그 다음으로 복수의 성분을 부정의 대상으로 파악하였으나 그 응답수는 매우 미미하다.

장형 부정문에서도 수량사가 쓰인 경우 부정의 대상이 수량사라는 점에는 단형 부정문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수량사를 부분 부정하는 것으로 보아 ‘일부가 오고 일부는 안 왔다’라는 의미로 파악한 경우가 72.59%, ‘한 명도 안 왔다’라는 전체 부정의 의미로 파악한 경우가 86.4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빈도가 높은 것이 서술어만을 부정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복수

성분에 대해서 부정의 대상으로 본 것인데 그 비율은 다른 경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실정이다.

수량사가 포함된 부정문의 인식에서도 남녀차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표 10〉 수량사가 포함된 부정문에서 파악한 부정의 대상

부정의 대상 응답자		① 주어, 수량사 전체		② 수량사 부분(일부 왔다)		③ 수량사 전체 (한 명도 안 왔다)		④ 서술어 (오지 않고 갔다)		⑤ 주어, 수량사 부분		⑥ 주어, 수량사 부분, 서술어		합 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단형	응답수	5	14	78	124	81	145	5	8	2	7	0	3	171	301
	비율(%)	5.21	8.59	81.25	76.07	84.38	88.96	5.21	4.91	2.08	4.29	0.00	1.84	178.13	184.66
장형	응답수	2	10	66	122	89	135	6	15	2	4	0	4	165	290
	비율(%)	2.08	6.13	68.75	74.85	92.71	82.82	6.25	9.20	2.08	2.45	0.00	2.45	171.88	177.91

수량사가 포함된 부정문에서 남녀 차이를 살펴보면 우선 전반적으로는 부정의 대상을 인식하는 데에 남성보다는 여성이 단형 부정문과 장형 부정문에 관계없이 앞서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부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보면 단형 부정문에서는 수량사에 대해서 부분 부정으로 인식하는 정도에서는 남성(81.25%)이 여성(76.07%)보다 앞서고, 수량사에 대해서 전체 부정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여성(88.96%)이 남성(84.38%)보다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장형 부정문에서는 그 상황이 반대이다. 수량사의 부분 부정에서는 여성(74.85%)이 남성(68.75%)보다 앞서고, 수량사 전체 부정에서는 남성(92.71%)이 여성(82.82%)보다 앞서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수량사가 포함된 단형과 장형 부정문에서도 그 차이가 크지 않아서 특별히 주목할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단형 부정문이나 장형 부정문 모두 중의성을 갖고 있으며, 그 중의성의 양상은 서로 유사하여 두 문장은 동의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단형 부정문과 장형 부정문 모두 수량사에 대해서 전체 부정으로 보는 응답이 부분 부정으로 보는 입장보다 남녀 관계없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다만 이러한 문장의 경우 장형 부정문보다 단형 부정문에서 부정의 대상에 대한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은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5. 종속절이 포함된 부정문의 중의성과 동의성

부정의 범위 문제와 관련하여 종속절이 부정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가의 문제도 부정문의 동의성이나 중의성에서 논의되어 온 문제이다. ‘돈을 벌기 위해 학교에 안 다닌다.’와 ‘돈을 벌기 위해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라는 부정문을 대상으로 5가지 부정의 대상이 다른 답지를 제시하고 그 중의성 문제를 확인해 보았다.¹⁶⁾

종속절을 가진 부정문의 경우 부정의 대상에 종속절이 포함될 수 있는가와 종속절에서 부정되는 대상이 분화될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표 11〉 종속절이 포함된 부정문의 중의성

부정의 대상 응답자		1개	2개	3개	4개	5개	합계	비고
단형	응답수	139	64	29	17	8	257	무응답자 2명
	비율(%)	54.09	24.90	11.28	6.61	3.11	99.99	
장형	응답수	96	73	49	27	11	256	무응답자 3명
	비율(%)	37.50	28.52	19.14	10.55	4.30	100.01	

우선 단형 부정문의 경우 응답을 하지 않은 2명을 제외하면 평균 1.80개의 응답이 나왔으나 하나의 답지에만 응답한 응답자가 139명, 54.09%에 해당하여 절반 이상이 중의성을 파악하지 못했다. 또한 중의적이라는 응답을 한 경우에는 두 가지 의미로 파악된다고 본 응답이 64명, 24.90%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종속절이 포함된 장형 부정문 “돈을 벌기 위해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라는 부정문의 중의성을 살펴보자. 장형 부정문에서는 단형 부정문과 일부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장형 부정문의 경우에는 무응답자 3명을 제외하면 평균 2.16개의 응답을 하였으며, 중의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하나의 답지에만 응답한 응답자가 96명, 37.50%로 단형 부정문에

16) 제시된 답지는 다음과 같다. ① 돈을 벌기 위해 학교를 쉬고 회사에 다닌다, ② 돈을 벌기 위해 학교에 다니지 않고 학교에서 근무한다, ③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쓰기 위해 학교에 다닌다, ④ 학교에 다니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다, 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명예를 위해서 학교에 다닌다.

비하여 크게 줄어들었다. 이 경우 종속절을 가진 문장의 경우에 언중들은 단형 부정문보다는 장형 부정문에서 중의성을 더 잘 파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정문의 구체적인 부정의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2〉 종속절이 포함된 부정문에서 파악한 부정의 대상

부정의 대상 응답자		① 주절의 부사어 (학교에)	② 주절의 서술어 (다닌다)	③ 종속절의 서술어 1 (돈을 쓰기 위해서)	④ 종속절의 서술어 2 (벌기 위해가 아니다)	⑤ 종속절의 목적어, 서술어 (명예를 위해서)	합계
단형	응답수	246	47	37	70	62	462
	비율(%)	95.72	18.29	14.40	27.24	24.12	179.77
장형	응답수	221	45	47	135	104	552
	비율(%)	86.33	17.58	18.36	52.73	40.63	215.63

종속절이 포함된 단형 부정문에서 부정의 대상이라고 파악한 내용을 보면 주절의 부사어를 부정의 대상으로 지적한 경우가 95.7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종속절이 부정의 대상이 되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65.76%가 부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세부적으로는 종속절의 서술어가 부정의 대상이 되어 다른 서술어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경우가 14.40%, 종속절의 서술어만 부정하는 경우(‘학교에 다니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의미)가 27.24%, 종속절 전체를 다른 의미로 대치하여 해석하는 경우(‘돈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학교에 다닌다’라는 의미)가 24.12%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단형 부정문에서 부정 부사 ‘안’이 부정하는 대상에 종속절이 포함될 수 있음이 분명하다.

또한 장형 부정문의 경우에는 단형 부정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절의 부사어를 부정의 대상으로 지적한 경우가 86.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종속절이 부정의 대상이 되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각각의 경우를 합하면 모두 111.72%가 부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세부적으로는 종속절의 서술어가 부정의 대상이 되며 다른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18.36%, 종속절 자체만 부정하는 경우(‘학교에 다니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의미)가 52.73%, 종속절 전체를 다른 의미로 대치하여 해석하는 경우(‘돈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학교에 다닌다.’라는 의미)가

40.63%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장형 부정문에서도 부정 부사 ‘안’이 부정하는 대상에 종속절이 포함될 수 있으며, 종속절이 부정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단형 부정문보다 장형 부정문에서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장형 부정문에서 종속절을 부정의 대상으로 본 비율을 합하면 주절의 부사어에 대해 부정의 대상으로 본 경우보다도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경향에서는 차이를 보이겠지만 단형 부정문과 장형 부정문 모두 종속절이 부정의 대상이 되며 모두 그 의미에서 중의성을 보인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는 없다.

종속절을 가진 부정문의 중의성에 대한 남녀 차이를 확인해 보면 비율의 수치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그 우선 순위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표 13〉 종속절이 포함된 부정문에서 파악한 부정의 대상에 대한 남녀차

부정의 대상 응답자		① 주절의 부사어 (학교에)		② 주절의 서술어 (다닌다)		③ 종속절의 서술어 1 (돈을 쓰기 위해서)		④ 종속절의 서술어 2 (벌기 위해야 아니다)		⑤ 종속절의 목적어, 서술어(명예를 위해서)		합 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단형	응답수	91	155	14	33	13	24	23	47	27	35	168	294
	비율(%)	95.79	95.68	14.74	20.37	13.68	14.81	24.21	29.01	28.42	21.60	176.84	181.48
장형	응답수	80	141	15	30	16	31	47	88	40	64	198	354
	비율(%)	86.02	86.50	16.13	18.40	17.20	19.02	50.54	53.99	43.01	39.26	212.90	217.18

전반적으로 보면 종속절이 포함된 부정문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부정의 대상에 대해 약간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정의 대상에 따라 남녀가 각각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 비율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남녀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종속절이 포함된 부정문의 경우에도 장형 부정문과 단형 부정문의 의미적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모두 중의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 양상에서 근본적인 차이점이 없어서 두 문장 역시 동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단형 부정문에 비하여 장형 부정문에서 남녀에 관계없이 종속절을 부정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다른

부정문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정문에서도 남성보다 여성이 부정의 대상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Ⅲ. 결 론

지금까지 일반적인 부정문, 부사를 가진 부정문, 수량사와 종속절을 포함하고 있는 부정문에 대해서 그 의미의 중의성과 동의성을 확인해 보았다. 이번 조사의 결과 중 몇 가지 특징을 정리하면서 결론에 갈음하고자 한다.

우선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단형 부정문과 장형 부정문에서 의미적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즉 두 문장은 동의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두 부정문은 중의성의 양상에서도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 단형 부정문과 장형 부정문의 모두 중의적이다. 다만 수량사가 쓰인 부정문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부정문에서 단형보다는 장형에서 부정의 대상에 대해 더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선행 연구에서 단형 부정문보다 장형 부정문의 중의성을 인정했던 것은, 이렇게 장형 부정문에서 나타나는 부정 대상에 대한 보다 민감한 반응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수량사가 포함된 부정문의 경우에는 단형 부정문과 장형 부정문에 관계없이 그 수량사에 대해서 전체 부정으로 보는 응답이 부분 부정의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부분 부정으로 해석할 경우 부정의 대상이 수량사가 됨을 의미하는 것이데, 이러한 인식이 언중에게는 보다 까다롭고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넷째, 부정문의 부정 대상의 인식에서 전반적으로 남성에 비하여 여성이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남성이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으나 그 차이는 미미하고 전반적으로 여성의 응답수가 남성보다 높다는 것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여성의 민감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단형과 장형 부정문의 차이점은 중의성과 동의성의 문제가 아니라 부정의 대상에 대한 인식의 차이, 즉 경향의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향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진 것은 종속절이 포함된 두 부정문의 사이에서 발견된다.

■ 참고문헌 ■

- 고영근·남기심(1985), 『표준 국어 문법론』, 탑출판사.
구종남(1992), “국어 부정문 연구”, 전북대 박사학위 논문.
박갑용(2005), “한국어 부정문의 구조”, 『부정과 부정어』, 한국문화사,
pp. 119 ~161.
박정규(1996), 『국어 부정문 연구』, 보고서.
서정수(1996), 『수정 증보판 국어문법』, 한양대학교 출판부.
송석중(1981), “한국말의 부정의 범위”, 한글 173·174, 한글학회, pp.327 ~351.
송석중(1993), 『한국어 문법의 새 조명-통사구조와 의미해석』, (주)지식산업사.
양동휘(1976), “Korean Negation Revisited”, 언어 1-1, 한국언어학회, pp.
187~213.
李基用(1979), “두 가지 否定文의 同意性 與否에 대하여”, 국어학 8, 국어학회,
pp. 59~93.
임홍빈(1978), “否定法の 論議와 國語의 現實”, 국어학 6, 국어학회,
pp. 185~ 206.

■ 필자 정보

성 명 : 박형우

근 무 지 : 한국교원대학교 국어교육과

연 락 처 : 043-230-3549 / 010-8388-3549

전자우편 : phwcgs@knue.ac.kr

<부록>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부정문의 의미와 그 사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귀하께서 기록해 주신 자료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부정문의 양상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이용됩니다.

질문 내용에 대한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며, 다른 사람과 상의 하실 필요 없이 본인의 생각을 그대로 기록하면 됩니다. 잠시 시간을 내서서 아래의 간단한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질문에 앞서 설문에 응해주신 분에 대해 간단히 조사하고자 합니다.

- ◎ 성별-남성(), 여성()
- ◎ 출신지- (자신이 성장하고 자란 지역, 예 : 경기도)
- ◎ 연령대- 대(예 : 30대)

※ 아래 문장의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모든 문장에 V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철수가 영희를 안 잡았다.

- ① 철수는 영희가 아니라 수희(제3의 인물)를 잡았다. ()
- ② 철수가 아니라 민수(제3의 인물)가 영희를 잡았다. ()
- ③ 철수는 영희를 잡은 것이 아니라 놓쳤다. ()
- ④ 철수가 아니라 민수가, 영희가 아니라 수희를 잡았다. ()
- ⑤ 철수가 아니라 민수가, 영희가 아니라 수희를 잡지 않고 놓쳤다. ()

2. 철수가 영희를 잡지 않았다.

- ① 철수는 영희가 아니라 수희(제3의 인물)를 잡았다. ()
- ② 철수가 아니라 민수(제3의 인물)가 영희를 잡았다. ()
- ③ 철수는 영희를 잡은 것이 아니라 놓쳤다. ()
- ④ 철수가 아니라 민수가, 영희가 아니라 수희를 잡았다. ()

- ⑤ 철수가 아니라 민수가, 영희가 아니라 수희를 잡지 않고 놓쳤다. ()

3. 연사가 갑자기 안 외쳤다.

- ① 연사가 아니라 조명 기사(제3의 인물)가 갑자기 외쳤다. ()
 ② 연사는 갑자기가 아니라 외칠 것 같은 조짐을 보이고 외쳤다. ()
 ③ 연사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계속 외치더니 지금은 외치지 않았다. ()
 ④ 연사는 갑자기 외친 것이 아니라 갑자기 노래를 불렀다. ()
 ⑤ 연사가 아니라 조명 기사(제3의 인물)가, 예고하고 외쳤다. ()
 ⑥ 연사가 아니라 조명 기사(제3의 인물)가, 예고하고 노래를 불렀다. ()

4. 연사가 갑자기 외치지 않았다.

- ① 연사가 아니라 조명 기사가 갑자기 외쳤다. ()
 ② 연사는 갑자기가 아니라 외칠 것 같은 조짐을 보이고 외쳤다. ()
 ③ 연사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계속 외치더니 지금은 외치지 않았다. ()
 ④ 연사는 갑자기 외친 것이 아니라 갑자기 노래를 불렀다. ()
 ⑤ 연사가 아니라 조명 기사(제3의 인물)가, 예고하고 외쳤다. ()
 ⑥ 연사가 아니라 조명 기사(제3의 인물)가, 예고하고 노래를 불렀다. ()

5. 손님이 모두 안 왔다.

- ① 손님이 아니라 주인들이 모두 왔다. ()
 ② 손님들 중 일부는 왔지만 일부는 도착하지 않았다. ()
 ③ 손님들이 한 명도 오지 않았다. ()
 ④ 손님들이 모두 온 것이 아니라 모두 가 버렸다. ()
 ⑤ 손님들이 아니라 주인들이, 모두가 아니라 일부가 왔다. ()
 ⑥ 손님들이 아니라 주인들이, 모두가 아니라 일부가 갔다. ()

6. 손님이 모두 오지 않았다.

- ① 손님이 아니라 주인들이 모두 왔다. ()
 ② 손님들 중 일부는 왔지만 일부는 도착하지 않았다. ()
 ③ 손님들이 한 명도 오지 않았다. ()
 ④ 손님들이 모두 온 것이 아니라 모두 가 버렸다. ()
 ⑤ 손님들이 아니라 주인들이, 모두가 아니라 일부가 왔다. ()
 ⑥ 손님들이 아니라 주인들이, 모두가 아니라 일부가 갔다. ()

7. 돈을 벌기 위해 학교에 안 다닌다.

- ① 돈을 벌기 위해 학교를 쉬고 회사에 다닌다. ()
- ② 돈을 벌기 위해 학교에 다니지 않고 학교에서 근무한다. ()
- ③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쓰기 위해 학교에 다닌다. ()
- ④ 학교에 다니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다. ()
- 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명예를 위해서 학교에 다닌다. ()

8. 돈을 벌기 위해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

- ① 돈을 벌기 위해 학교를 쉬고 회사에 다닌다. ()
- ② 돈을 벌기 위해 학교에 다니지 않고 학교에서 근무한다. ()
- ③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쓰기 위해 학교에 다닌다. ()
- ④ 학교에 다니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다. ()
- 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명예를 위해서 학교에 다닌다. ()

<초록>

부정문의 중의성과 동의성 양상에 대한 연구

박형우

본고에서는 국어 부정문에서 나타나는 중의성과 동의성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부정문에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한다는 것은 국어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인데 이 두 부정문의 의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어 온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두 유형의 중의성과 동의성에 대한 것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밝힌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두 부정문은 의미 측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다. 즉 동의성을 갖는다.
- ② 두 부정문은 중의성의 측면에서 살펴봐도 차이가 없다.
- ③ 수량사가 포함된 부정문의 경우 두 유형 모두 전체 부정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 ④ 부정의 대상에 대한 인식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두 유형에 관계 없이 더 민감하다.
- ⑤ 두 부정문의 의미적 차이는 부정의 인식 차이 정도이며, 이는 종속절이 포함된 문장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핵심어】 부정문의 중의성, 부정문의 동의성, 단형 부정문, 장형 부정문, 부정의 대상

<Abstract>

A Study on the Aspect of Ambiguity and Synonymy in Korean Negative Sentences

Park, Hyeong-wo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rvey the aspect of ambiguity and synonymy in Korean negative sentences by the use of questionnaire. The fact that Korean negative sentences have two types(short Negation and long Negat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haracteristics in Korean language. Although ambiguity and synonymy of two types has been an object of study for a long time, there is little agreement.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as analyzing statistical data

- ① There is almost no difference in semantic relation of two types.
Two types are synonymy relation.
- ② Two types have no difference in terms of ambiguity.
- ③ Two types have a tendency to being recognized total-negation in case of negative sentences that have ‘quantifier’
- ④ women are more sensitive than men in cognition on the object of negation
- ⑤ The difference between two types is only a degree of cognition about negation. This difference become the most clear in case of negative sentences that have a subordinate clause

【Key words】 Ambiguity of Negative Sentences, Synonymy of Negative Sentences, Short Negation, Long Negation, Object of Negation